# 내년 예산 1조 6631억원 편성

## 익산시, 민생경제 회복에 방점… 민선8기 시정운영 반영

익산시가 장기적인 코로나 시대에 민생경제 회복을 견인하면서 민선8기 시정운영 방향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1조 6,631억원을 편성하여 21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대비 6%(942억원) 증액한 규모로 일반회계 1조 5,375억원, 특별회계 1,256억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하면서 교육과 청년정책 및 녹색도시 익산 조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예산안의 편성내역을 보면 안전, 교육분야는 △석탄, 여산, 판문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58억원 △인화지구 우수 저류시설 설치공사 12억원 △원어민 화상영어교육과 원어민 외국어 프로젝트 지원 6억원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예체능 활동 지원을 위한 행복 JUMP-UP 프로젝트 4억원 등을 편성했다.

문화 및 관광분야 주요사업은 △익산세계유산탐방거점센터 건립 43억원 △익산교도소세트장 이색교도소 조성사업 58억원 △문화도시 조성사업 30억원 △문화재 야행사업 7억원과 1시민 1악기 프로젝트 확대 3억원 등이다.

환경분야에서는 도심속에서 자연생태친화적인 녹색정원을 누릴 수 있도록 △송학동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28억원 △시민친화적 도시숲 조성 12억원 △인화공원 솜리메타누리길 조성 12억원 △학교숲 조성사업 4억원 △송학동 공원 조성을 위한 용역비 2억원을 편성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기 위해 초점을 맞췄다.

사회복지 분야로는 취약계층과 노년생활 안정화를 위해 △기초연금 1,665억원 △노인일자리사업 400억 △장애인 활동지원에 167억원과 저출산시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0~2세 영유아 보육료 194억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82억 △청소년 복지바전사업 6억원 등을 편성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가 추진한 농업부산물 파쇄 무상지원이 농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농업부산물파쇄지원’ 큰 호응

## 익산시, 미세먼지 저감 · 소각 방지 · 처리비용 절감 등 ‘1석3조’

익산시가 추진한 농업부산물 파쇄 무상지원이 농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가 3개 권역으로 나눠 영농전(3~5월), 가을 추수후(10~11월) 5개월 동안 농업부산물 파쇄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 2020년도 403농가에서 작년에는 419농가가 참여했다. 올해도 상반기 183농가가 경작지 내에서 농업부산물 파쇄 사업을 진행했고 가을 추수철에는 더욱 참여 농가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파쇄사업 지원대상자는 농업부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인 지역 영세농 또는 고령농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청소자원과(☎ 063-859-5412)와 각 읍면동으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사업 추진으로 농업부산물을 경작지 내에서 파쇄 처리하고 퇴비화를 유도하여 농업부산물 처리비용 절감은 물론 불법 소각행위 방지, 미세먼지 저감 등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2019년부터 농경지와 하천변 등에서 성행하는 농업부산물 등 불법소각행위 적발을 위해 상시 단속반을 집중 운영한다. 적발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에 의한 불법소각 행위 적발시에는 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30%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해마다 증가하는 불법소각에 대한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와 농가의 부족한 일손 해소 및 쾌적한 농촌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농업부산물 파쇄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익산=이재춘기자

# “청년공유주방 정착, 공무원 앞장” 주문

## 정헌율 익산시장, 청년창업 성공정착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 수도권 중심 홍보도

정헌율 익산시장이 청년 창업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시범운영에 들어간 청년공유주방의 성공 정착을 위해 공무원들이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정 시장은 21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KTX 익산역 앞에 위치한 익산 음식·식품교육문화원의 청년공유주방에 배달형 청년 외식창업 3곳이 이번주 첫 영업을 시작했다”며 “입소문 마케팅이 시민들에게 전달될 때까지 초기 정착 단계에 공무원들이 주축이 돼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글로벌문화관의 다문화 음식점의 경우 초기 공무원들의 이용 독려에 힘입어 빠르게 정착될 수 있었다”며 “치열한 창업 경쟁 속에서 청년 창업자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응원과 함께 소비 촉진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 시장은 “내년도 국회예산안 처리시한이 다음달 2일로 얼마남지 않았다”며 “국가 예산확보를 위해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실시간 신속 대응해 지역 주요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시장은 내년 1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답례품목 제작 업체 선정 등 후속 준비를 철저히 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밖에도 정 시장은 “조직개편 등에 따른 현안 업무들을 면밀히 챙겨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 ‘쌀소비 돌파구’ 기업맞춤형 쌀확대… 익산농가협의회 구성

익산시는 줄어가는 쌀 소비 돌파구로 고품질 기업 맞춤형 쌀 생산으로 판로개척에 앞장 선다.

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CJ 햇반 원료곡 생산 농업인들이 협의회 추진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CJ 햇반 원료곡 생산 협의체는 농가 단지 대표를 중심으로 행정과 경영체(농협, RPC)의 협력 강화를 기반으로 기업 맞춤형 쌀 공급 확대를 위한 공동 유통·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한 논의를 나눴으며 회장, 부회장, 총무를 각 1명씩 선출하여 협의회 운영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

앞으로 협의회는 쌀소비 및 판로 확대를 위한 기업 맞춤형 쌀 생산 관련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홍보에 나선다.

또한 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 함께 수매현장을 점검하고 농촌체험 시설을 활용해 간담회를 진행하며 품질 관리에 대한 신뢰와 유대관계를 쌓아가는 한편 연말에는 사랑의 나눔 쌀 기탁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그간 익산시는 2020년부터 CJ 햇반 원료곡 공급 전국 1위의 자리를 지켜왔다. 현재 2,350ha계약 면적에 25개 단지 1400여 농가가 재배에 참여하고 있다. 익산 벼 전체 생산량의 20.1%를 차지하는 2만8천5여톤의 쌀이 생산될 것으로 추산한다.

시는 기업 맞춤형 생산단지를 적극 활성화해 고품질 쌀 생산 전략으로 익산 향토 기업인 하림의 즉석밥 원료곡을 전량 공급하고 있으며, 학교급식 납품 등 판로 개척에 집중하고 있다.

엄격한 품질관리로 재배된 탑마루 친환경 쌀을 서울시 노원구, 은평구, 강북구 학교급식에 공급 중으로 지난 8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학교급식 공급에 선정돼 연간 350여 톤을 서울시 소재 학교에 공급할 계획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 대야남초,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소소심 실시

군산시는 21일 대야남초등학교(교장 조명수) 꿈나래관에서 학생과 교직원 대상으로 소소심 훈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최근 이태원 참사로 응급조치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며 심폐소생술 강사자격증을 갖춘 군산의 용소방대연합회 119 수호천사 홍보단의 심폐소생술 시범 행사로 시작했다.

시범행사는 신나는 음악과 함께 심폐소생술의 절차와 방법을 율동(안무)과 가사로 만들어 시민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했다.

본 훈련은 △심폐소생술(CPR)의 기능과 중요성, △체험인형(애니)를 통한 전문강사의 심폐소생술 시연 및 직접실습, △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 AED) 사용방법 설명, △화재 등 위기상황 시 비상탈출법, △소화기와 소화전 사용방법, △화재대비 소방훈련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훈련에 참여한 학생은 “불이 나거나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는데, 오늘 훈련에서 배운 것을 잘 익혀두면 잘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실제 상황에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강화 시켜야 한다”며 “심폐소생술과 소화기 사용법 등을 알면 의료인이 아닌 나 자신도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을 위해 꼭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 지역 소식통

### 군산시, 귀이빨대칭이 살리기 행사 23일 개최

군산시는 오는 23일 대간선 수로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귀이빨대칭이의 겨울철 폐사를 막기 위해 안전한 공간으로의 이주 및 방사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귀이빨대칭이는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로 다 자란 성체는 최대 길이가 18㎝ 정도이며, 우리나라 민물조개류 중에서 가장 큰 축에 속한다. 귀 모양의 돌기와 측치(側齒)가 있어 귀이빨대칭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며, 지난 1998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됐다.

시는 2021년 10월 국립생태원의 조사를 통해 귀이빨대칭이가 대야면부터 옥구읍까지 이어진 대간선 수로 약 12㎞ 구간에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지난 5월 27일 시, 전북지방환경청,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 회의에서 열악한 서식 환경으로부터 귀이빨대칭이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으며 이주를 통해 안전한 서식 환경 조성 및 종 보호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군산=김판곤 기자

### 군산평생학습관, 시민과 함께하는 거리공연 열어

군산시평생학습관은 지난 19일 배움과 나눔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일상에서 즐기는 학습공동체 역할을 위해 거리공연을 미룡2공원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거리공연은 평생학습을 수강하는 수강생과 강사, 시민 200여명이 참여해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다.

거리공연 6개 참여팀은 평생학습관의 아름다운 가곡, 전통 한국무용, 통기타 강좌와 동네 문화카페의 플룻, 하모니카, 색소폰 강좌 수강생들이 참여해 그동안 쌓아왔던 실력을 맘껏 뽐냈다.

김종필 교육지원과장은 “평생학습을 통해 시민들과 공감하며 소통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고 군산시를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여러장소를 활용해, 배움이 끝이 아닌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